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을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THE GOSPEL NEWS

4月15日(木) <1982年> 第386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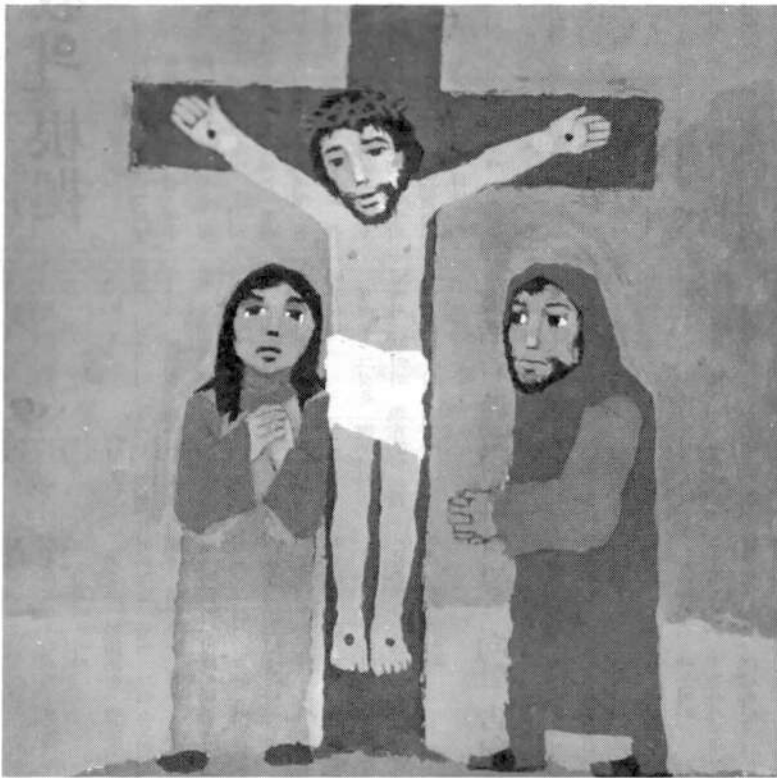
発行人 尹宗銀・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 5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 26)



教団山口西分区와 下関教会
合同礼拝 실시

日本基督教団山口西分区와 在日大韓基督教団下関教会와의 合同礼拝가 三月十四日(日) 下関教会에서 가제 約一百名이 参加하여 은혜가운데 성회를 이뤘다.

一部礼拝는 上本恵子牧師(教団下関教会)가 日本語와 韓国語로 司會를 進行하였고 申鉉錫牧師가 「그리스도에 의한 和解」(본문에

第二部는 兩教会에서 준비한 詩篇을 나누면서 즐거움과 사랑을 親睦의 禮를 이뤘다.

禮拝後 合同礼拝에 대한 兩教会의 反應은 매우 좋았고 앞으로 兩教会가 지고있는 問題를 상호가 解決하기 위해 具體的으로 인한 것을 다짐하고 閉會했다. (通信 申鉉錫牧師)



下関教会와 山口西分区教会合同礼拝

創立30周年記念式
岡崎教会서 举行



創立30周年式에서 표창받는 집사들

岡崎教会(鄭永吉牧師)는 解放以後 재개성하며부터 三十周年이 된것을 記念하여 特別聖會를 三月十二日(金)부터 十四日(日)까지 福音教会 金聖南牧師를 講師로 모시고 恩惠로운 集會를 하였으며 十四日(日) 오후三時에 記念禮拝를 지켰다.

三十周年記念禮拝는 鄭永吉牧師의 司會, 地方會長 李海春牧師의 祈禱가 있었으며 詩篇 百十篇을 통하여 講師金聖南牧師는 「주의 愛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태화집사의 教會略史보고가 있었으며 創立初期 功勞者로 奉獻하신사(現在 東京교회) 서재훈장로 現在 名古屋教会)가 표창되었고 特別三十周年 紀念으로 이 대와 하수봉 집사, 하수영 유선준 집사, 諸氏를 表彰할 때에는 各자의 努力을 褒려해서 盛大한 宴會를 開했다.

이어서 黃義生總회장 하유식總領事 김상구민다사 부부장 日本基督教団의 竹内牧師의 祝辭가 있은후 淸화구목사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참석한 이들에게는 記念品을 증정하고 盛大한 잔치를 베풀어 흐뭇한 하루를 보냈다. (通信 鄭永吉牧師)

運輸省認可

新盛運輸

代表取締役 金 哲 淳

事務所: 東京都港区新橋3-13-3富士第二ビル
電話 03(436)1036番
自宅: 横浜市神奈川区六角橋3-4-7
電話 045(491)5955番

「十字架の言葉は、滅びゆく者には愚かであるが
救いにあずかるわたしたちには、神の力である」

美術箔押印刷

青山ホット工芸

代表 金 太 然

(西新井教会)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25-12
電話 (03) 896-4083番

尾頭センター 株式会社

名古屋市市中川区尾頭橋通2-16
電話 (052) 331-1222~3番

代表者 金 京 秋

自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話 (06) 981-2980番

代表者 姜 南 中

自宅 大阪市東成区東今里2-2-8
電話 (06) 976-4937番

성명의샘

①

復活은 人間의 希望과 宣敎의 根柢

내가 그리스도의 그復活의 권능과 그苦難에 참와함을 알리하여 그의죽음을 본받아 어찌하는지 죽은자가운데서復活에 이르러하노니 (빌립보서 삼장 십절)

에밀 브루너는 그의 책「未來와 現在의 こと로서의 永遠性」第十五章에 마치바움의 고린도전서十五章처럼復活을 展開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復活이란 時間의 반복판!에 하나님의 永遠性이 介하여 現在의 こと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事件이다. 그것은時間과 空間의 實存을 止揚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概念化하거나 理論化할수 없는 事件이다. 그러나復活은 반드시 十字架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自身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立証하신 自己証提이다.

이新約聖書의 메시지는各 界 各層에게 여러가지 形態로 이二重性을 強調하고있다.

그리스도의 苦難에 同參할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復活의 권능과 그苦難에 참와함을 알리하여 (빌립보서 삼장 십절)

바울은 그리스도의復活을論할때 그리스도의 苦難과 同參하여 놓고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復活의 아들이 그가 당하신 苦難과 죽음과 사후의 苦難과 同參하여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復活의 권능과 그苦難에 참와함을 알리하고있다. 바울의 여기서 말한「안다」는 동사의 原理에對한 知識 또는 理論이아니다. 다른사람의 經驗을 그대로經

증復活하신 분은 그의땅 위의 生涯에서 알려진 예수님과 同一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이 동사에 땅위에 사는 存在하는 전혀 다른存在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事實이다. 손으로復活하신 분의 傷痕을 만져보고 그분이 歷史的인 예수와 同一하신 분이것을 確證한다. (요二十장 五)고 하는 도마의 기사는 첫째 意味를 가리키는 가장 두드러진 例이다. 그리고 迫害하는 사울을 예수님의 使徒바울이 되게 한 하늘의 음성과 빛이 라는가 엠마오도를 걸어가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認識하지 못했지만 빵을 떼어죽사시는 것에대해서 비로써이 神秘的인 第三者가 누구인가를 認識하는 그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는 記事는 예수님의存在의 眞實性을 가지고 계시는 그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행九:三) (路四:十三)

復活은 希望의 하나님을 向한 告白

그의 죽음을 본받아어찌하는지 죽은자가운데서復活에 이르러하노니 (빌립보서 삼장 십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해준다. 그것은 時間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永遠性이介하여 들어오신 그리스도의復活事件이 우리에게 보충해주고 있기때문이다. 바울은 이復活의 권능을경험하려고 할때 그리스도의苦難에 同參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일이 가능한다는것을알았다. 그래서 그는 먼저죽는 방법을 배워뒀었다. 오늘날 우리중에 혹시 죽으려고하지 않으면서復活의榮光만을 차지하려는 사람은없는가? 죽지 않고는復活이있을수 없는것이다.

讚頌歌曲、歌詞募集

讚頌歌委員會서

第三十六回定期總會에서 敎育局안에 새로 設置한 讚頌歌委員會(委員長 申鉉錫牧師)는 우리總會의 独自の 讚頌歌徵集을 위하여 勸誘하기 시작했다.

- 一、信徒의 眞摯을 노래한 歌曲、歌詞
- 二、特選作은 一萬圓 相當의 賞品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讚頌歌徵集시에는 讚頌歌에 附하여 使用하게 된다.
- 三、選考는 讚頌歌委員會에서 한다.
- 四、보낼곳 申鉉錫委員長까지 下関市神田町五番六号 在日大韓基督敎下関敎會 ○八三二(三)〇〇九七 一九八二年三月十日 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 讚頌歌委員長 申鉉錫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것이다

(요한복음14:19~21)

鄭永吉牧師(岡崎敎會)

說教



만약에 예수께서 아무리偉大한 가르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의 죽음이 十字架에서 끝났었다면 그以上의變化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다시 자기자리로 돌아갔고 悔改했지만 또 육된 生活을 했것이고 아름다운 生活을 覺悟했지만 별수없는 부끄러운 生을 다시 살수밖에 없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復活하셨을니다. 제자들은復活한 예수와 함께 먹기도하고 함께애기도했습니다.復活을 確證한 제자들은 生業만 버렸것이 아니라 온전히 自身까지 버리고復活한 에수를 증거했음을 가지고 勝利하는 삶을살았을 것입니다.

復活은 價値를 가진 삶의 勝利

復活은 人間의 苦難과 죽음으로 끝나는 人間의無價値性을 排除합니다. 人間의 삶이말로 價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지않고 살아있다고하는 것만큼 貴하고 고마운일을 없습니다. 가진것이 없어도 살아있는것만 고마운 때 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음을 이기고살아나셨다는 것은 삶의 勝利입니다.

生의 價値와 意味를 가진 사람은 삶의 方法이 다릅니다. 苦難을 이길수있고 비극을 克服할수 있습니다. 예수復活은 人間의 苦難과 비극을 넘어선 勝利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復活은人間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삶의 內容입니다. 몇몇하고자 고대로 올라왔습니다. 十字架 위에서 조롱을 당하고 면치를 당하며 苦難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反抗도 못했습니다. 結局은 十字架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復活은 永遠한 삶의 勝利

復活은 죽으면 끝나는生業에서 永遠히 산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人間에게는 죽음이 끝이아니고 죽음을 넘어선復活의 勝利가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人間의 生命이란 繼續입니다. 信仰은 죽음의 支配를 받는 것이 아니라 生命의 支配를 받습니다. 그러기에復活信仰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않고 永遠한 삶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希望도 되지만 이世上에서의 올바른 삶의 道徑도 됩니다.

「누구는지 내안에 있으면 아버지안에 있고 아버지안에 있으면 내안에 있다」는 말은 現在의인 永遠한 삶의 勝利입니다.

復活은 하나님과 함께 함

主의 復活은 現在의인 삶이나 未來의인 삶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수자신이 復活의 삶을시작하였을때 그는 죽은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수 그리스도의 事件은 人間의 時間속에 永遠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 함께 하신 것입니다. 人間의 아픔과 슬픔과 苦難을 直接 經驗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수의 죽음은 사랑의 極致였습니다.

참 사랑은 犧牲을 동반하고 手酷을 必要로 합니다. 많은 行動을 수반하지 않으면 眞實이 없습니다. 에수는 사랑의 實踐이었습니다.復活을 勝利로 榮光이라고하지만 죽음의 勝利로 榮光이라고하지만 죽음의 勝利로 榮光이라고하지만 죽음의 勝利로 榮光이라고합니다.

復活이 죽음을 동반하듯이 사랑은 犧牲을 수반합니다. 자기 十字架를 지고 아픔을 아는 자만이 勝利의 榮光인復活도 經驗합니다. 「나는너희와 함께 살아있다」

白木金属商会

崔永模 (福岡敎會 長老)

〒816 大野城市大字瓦田 784-1
電話 092(581)1629

〈電々公社認定〉
構内交換機・ボタン電話

松下通信工業(株)専売代行店
(株)ナカヨ通信機特約店
東亜特殊電機(株)特約店

株式会社 高德通信工業

代表取締役 李建豪
(名古屋敎會 執事)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 名古屋 <052> 431-3156 (代)

キムチ・ホルモン・焼肉タレ製造加工

高山食品

代表者 元洪植
(福岡敎會 執事)

福岡市博多区東那珂 3-9-26
電話 092(471)0258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韓国統一問題の聖書的照明(完)

安 炳 茂 博士

(韓国神学研究所々長)

ガリラヤとエルサレム

すでに国土は外勢によって占領されつつある中、ユダイスラエルを分けることはできないが、精神的にはこれらがはっきりと区分されていたのである。ユダ地方はサマリア地方とその住民を異端視して相手にせず、ガリラヤを「異邦人の地」、(捨てられた地)としてしまった。ユダの地の心臓はエルサレムの聖殿である。この聖殿(の基)は「神の箱」で、それは王座以前イスラエルの信仰のシンボルであるが、それを奪って独占することにより、それをその優越権の根拠にし、そのような優越権の下での者達が生きているヤウエを聖殿に閉じ込めて、それを食いのたてにする。何故イエスがユダ地方のエルサレムではないガリラヤを舞台として選択したのか推測することが出来る。この点から「マルコ福音の手紙」は、はっきりとした意識を持っていた。彼はガリラヤを強調しつつ、

エルサレムと対立させる。イエスとその一派を「ガリラヤ人」と呼ぶのはガリラヤ的であって、イエスの敵対者たちをエルサレムと直結させて「エルサレムから降りてきた」(マルコ三:二二・二七)と念を押した。そのみでなく、ガリラヤイスラエルはイエスが絶対歓迎を受けた場所であり、エルサレムは、イエスを殺した場所である。復活したイエスはエルサレムで死に、そこに葬られたのに拘らず、ガリラヤでまた会ったと言われた(マルコ十四:二八・二九)。ユダの約束の場所もガリラヤであって、エルサレム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我々はこのように一連の事実を地方感情の露出であると見て

韓国の民族統一問題

以上で新旧約を通じた民族統一と分裂の過程をみながら、その分裂の理由とその是非に対する断片的考察をした。イスラエルの民族分裂と統一の問題を、そのままだに適用させることは出来ない。しかしそこから最少限次のいくつかの方向提議を求めることは出来るだろう。

民による民族統一

①民族分裂は「民」によって起こることではなく権力欲を持つた執権階級によって招来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我が国の分裂は、国際政治のいたずらの産物であることが、その一時的な原因である。しかし南北の「民」が、民としての姿勢を堅持すれば他人たちがそうは出来なかつたであろう。北では共産主義者たちが執権政で北単独の政府をすばやく樹立し、南では李承晩の主導によって単独政府樹立を押し切った。このような政権欲に依る両政権樹立がこの民族の分裂を既定事実化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

②統一は、軍事力と統治体制の強化によって可能であると信じた。それ故に神の主権を侵した。しかしその結果は213民族の分裂を深めた。我々の場合

の「主権」が民の共同の念願であつた。しかし我々はこの原理を適用させるといふならば「民の共同分母」を統一の基本原則と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とになる。それは共産主義者たちがイデオロギーとして掲げていた政治的スローガンである(プロレタリア)とは絶対的に違ふ。共産世界においていつプロレタリアが独裁したか？たまたプロレタリアの名前を悪用する知識層のグループが独裁しているだけである。彼等は「民」を暴力で奪った者たちであるに過ぎない。それ故に我々は民主主義を至上の課題のように渴望するのである。理由はそれが西欧の自由陣営の産物であるからではない。我々が念願する民主主義は「民」の神の直接統治の下にもどって行つて自分が選択することが出来る条件に作つてくれる体制を意味する。このように成つた時、我々の統一の実践も初めて可能になるのである。ところで北は論議の余地がなく、民主主義を標榜した南韓でも統一論はいつも政権主導、否、政権だけして来たのだ。それは端的に民主主義制度が確立されていまいという証拠であつて、従つて「民」による統一の道を許さなかつたということだ。

教会の統一のための努力

キリスト教会は次のいくつかの段階で統一のための努力をすることが出来る。そしてそうする義務がある。第一番目は共産主義に対する啓蒙運動である。今まで教会は感情的な「反共」というスローガンひとつで「反共」の任務を終つたかのような姿勢を取つて来た。しかしそれで反共が出来たのではない。今は共産主義の真相を知らなければならぬ。時に共産主義神話時代は過ぎ去つた。それ故に我々には、更にキリスト教としてはそのように守る理由がない。教会は政府に共産主義との「対話ある解決」のための努力を認めるように要求しなければならぬ。キリスト教会にまでその問題を取扱うことを話すことで危険視するならば「民」による統一の道を全く排除しようということだ。

第二はキリスト教は共産主義が主張しているいわゆる「主義」の内容を避けてはならぬ。逆にそれを実践で争取することによりそれを武器にする積極的姿勢に立たねばならぬ。貧しい者のためにと云うならば、キリスト教こそ「貧しきものの側」に立つようになつてゐる。我々が我々の本来の義務を前面に押し出して実践する時、共産主義者たちの虚像は無力にならざるを得ない。人民解放などのスローガ

結びの言葉

我々はこの日まで政権「と」に硬直化されてきたが、そうなる大きな理由の一つはやはり分断状況である。以前共産政権だけ見ても、地球上類例のない悪態な道を歩むことが出来るのも、この分断状態が口実の盾になるために可能である。我々は経済的に対外依存度が日に日に上昇するのを批判するが、これも「分断状況」がもたらす悲劇である。南韓の一年予算のうち35%を越える額を国防費に支出する現況であるので、結局どんなに経済成長を掲げても切斷された腰からそんな風に出血される限り赤字だけは増えるを得ない。

74年に国際収支赤字が20億ドルであつたのが80年には55億、外債利子償還額が79年に14億ドルであつたのが、80年には25億ドルであり、現在300億ドルの借金を背負つてゐるという事実が我が国の悲劇を物語つてゐるのである。この点では以北の状況はもつとひどいのである。我々が「南北対決」からの軍事力による出血を塞ぎながら、すでに日本の水準に達することが出来ないという理由はないのである。それ故統一には経済難国の解決の鍵であり、同時に我々の金額である民主主義社会実現の鍵である。ところで我々は単純にそのような政治体制を飛躍的にすすめるためにはなく、我々の「民」を神の統治下に置く新しい社会をつくりあげたのである。

案内

- ◎中部地方青年部集会
日時 五月二、三両日
場所 岐阜教会
講師 金信煥牧師(予定)
- ◎中部地方教部修養会
日時 五月五日・七日
場所 長野県益根温泉
主題 具本興牧師(予定)の「
会費 一五、〇〇〇円
- ◎本部四教団 宣教協議会
日時 五月十七日・十八日
場所 東京YMCA
- ◎神学研究会 修
日時 五月十八日・二十一日
場所 東京YMCA
- ◎教務報告
一九八二年度教務報告 吳諸
職名單 李 希 朴 圭 植 等
- ◎聖誕節献金
聖誕節献金中 十分之二をア
ナ 未納 教会 未納 未納 未納
ナ 未納 教会 未納 未納 未納
- ◎総会手帖代金
一九八二年度総会手帖代金 未納
未納 教会 未納 未納 未納
ナ 未納 教会 未納 未納 未納

(株)京都メッキ

社長 茂 戌 冀
(京都南部教会長老)

〒601 京都市南区東九条鳥丸町22
電話 075-681-6751番

加工貿易

安田商事

代表者 安 秉 鉉
(熊本教会長老)

〒862 熊本市水前寺六丁目七一
電話 0963-81-9051番

宅建千葉県知事登録(3)第3841号

三信商事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権 富 仁
(船橋教会 長老)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0474(76)6181~2番
自 宅 千葉県船橋市前原西1-17-1
電話0474(72)2228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2-11-3

味を芸術する
焼肉専門の店

食 楽 園

京都市右京区西大路五条西30m
電話075(311)4008